

제2장

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□ 기본현황

- 인 구 : 141천세대, 305천명
- 면 적 : 41.77km²
- 행정구역 : 16동 453통 2,709반
- 공 무 원 : 959명
- 행정조직 : 4국 2실 24과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3사업소, 16개동

□ 기반시설

- 도 로 : 268.6km (도로율 18.5%)
- 주 택 : 135.6천호 (보급율 105.7%)
- 상 수 도 : 29.7천전 (보급율 100%)
- 하 수 도 : 1,204km (보급율 75.4%)
- 도시철도 : 14km (1호선, 12개역)
- 공원·유원지 : 55개소

□ 생활환경

- 문화관광시설 : 179개소(영화관 1, 공연장 2, 관광호텔 2, 여행사 38, 기타 140)
- 교육기관 : 58개교 (대학교 2, 고등학교 14, 중학교 16, 초등학교 26)
- 체육시설 : 319개소(체력단련장 66, 골프연습장 39, 수영장 2, 기타 212)
- 어린이집 : 150개소(국공립 27, 법인 9, 민간 55, 가정 49, 직장 1, 기타 9)
- 등록차량 : 114,522대 (승용 95,454, 화물 15,267, 기타 3,810)

1) 2022년 지역기본자료(사하구)

□ 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

- 복지시설 : 60개소(재가노인시설19, 노인복지관3, 요양시설1, 여성시설2, 기타25)
- 의료업소 : 525개소(병원 42, 의원 196, 치과의원 105, 한의원 89, 기타 93)
- 약업소 : 732개소(약국 131, 의료기기판매업 369, 도매상 15, 의료기기수리업 7, 안전상비 의약품판매 210)

□ 지역경제

- 공업입지 : 4.97km², 등록업체 1,460개, 종업원 28,854명
- 공단현황 : 2,815천 m², 623개 업체
 - ▷ 신평·장림산업단지(기존단지) : 885천 m², 142개 업체
 - ▷ 신평·장림산업단지(협업단지) : 1,930천 m², 481개 업체
- 유통시설 : 39개소 (대형마트 3, 쇼핑센터 2, 전통시장 15, 기타 19)

□ 국내외 자매결연, 우호협력 도시 현황

- 국 내(3) : 경기도 안성시, 전라남도 화순군, 경상남도 남해군
- 해 외(1) : 중국 상해시 정안구

□ 재정규모

-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비 고
예산액	791,764	780,381	11,383	

※ 재정자립도²⁾ : 16.38%, 재정자주도³⁾ : 34.06%

2)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 가늠 지표, 자체수입액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체수입=지방세+세외수입

3) 재량적·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비율, (자체수입+자주재원)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주재원=지방교부세+조정교부금등

□ (세계경제)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

○ OECD와 세계은행(WB)은 '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.0%, 2.9%로 기존 전망 대비 $\Delta 1.5\%p$, $\Delta 1.2\%p$ 하향 조정(OECD·WB, '22.6.8.)

○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,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(OECD, '22.6.8.)

※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(%) : ('19) 2.0 ('20) 1.3 ('21) 3.7 ('22) 8.8 ('23) 6.1

□ (국내경제)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

○ 국내경제는 ('22년) 2.7%, ('23년) 2.4% 성장할 것으로 전망,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$\Delta 0.3\%p$, $\Delta 0.1\%p$ 하향 조정*(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, '22.5.26.)

※ '22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(%) : (IMF('22.4.)) 2.5, (OECD('22.6.)) 2.7, (한은('22.5.)) 2.7

* 최근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2.7%보다도 하회할 것으로 예상(한은, 7.13.)

○ 민간 소비는 거리두기 해제,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

○ 다만, 주요국 성장세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 회복세도 완만할 전망

○ 특히, 물가 상승 압력 확대로 '22년 소비자물가는 4.5% 상승 전망

<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(% , 5.26. 기준) >

	'21년	'22년	'23년
경제성장률	4.0	2.7	2.4
민간소비	3.6	3.7	2.7
설비투자	8.3	$\Delta 1.5$	2.1
소비자물가	2.5	4.5	2.9

① 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

- (효율적 예산편성) 지역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, 전략적 지출 재구조화 추진
 -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·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 확보
 -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,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 효율성 제고
- (신속집행)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,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
 - 체계적 세입 분석을 바탕으로 연중 수입 규모 파악, 당초예산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기간을 최대한 확보
 - 대규모 투자사업·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연도 개시 전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추진

② 복지 분야 지출구조 개선 및 자체사업 효율화

- (재정부담 구조 합리화) 사업특성 및 수혜대상,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국가-지방 재정부담 구조 합리화
- (자체사업 정비)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저성과 사업 및 유사·중복사업 정비 등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비
 - 특히, 현금성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, 재정여력·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·축소·폐지 등 지출 개선 필요

③ 지방재정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

- (자율성 강화)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책을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, 지자체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대 지속 추진
 - 지자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, 과도한 요건 등을 줄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원활용 지원
- (책임성 확보)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투명성·책임성 강화 병행
 -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자치단체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 사후 관리,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추진

④ 고용·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견인

- (지역산업 혁신) 미래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·녹색산업 등 향후 지역 유망 산업 발굴·투자 확대로 경쟁력 확보
 - 지자체 주도사업, 지자체간 협력사업, 주민 주도사업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 특화 전략 우수사업을 발굴
- (일자리 창출 지원)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전직·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
 - 지방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·장년층 대상 취업유인 제고, 구인·구직 서비스 제공,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
- (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)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모델 발굴
 -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, 지자체-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지역 현장밀착 지원 실시

